

절치부심 라건아 vs 기세등등 모트리

59G연속 더블더블 꾸준한 라건아
3차전 45점차 대패...승부욕 자극
48점 'PO 한경기 최다득점' 모트리
"4차전도 3차전과 똑같이 하겠다"

국내남자프로농구(KBL)는 외국인 선수의 존재감이 절대적인 리그다.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는 예년에 비해 국내선수들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플레이오프(PO)에서는 맞대결을 펼치는 팀 간 외국인선수 매치-업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있다.

전주 KCC와 인천 전자랜드의 4강 PO(5전3승제)도 마찬가지다. KCC 라건아(32·199cm)와 전자랜드 조나단 모트리(26·204cm)의 매치-업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가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2차전은 라건아의 승리였다. KBL 터줏대감인 그는 1차전(85-75·KCC 승)에서 23점·19리바운드, 2차전(92-74·KCC 승)에서 24점·13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모트리를 압도했다. 라건아의 장거리 중거리 슛과 리바운드 기습에 모트리가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러나 3차전(112-67·전자랜드 승)에서 라건아는 14점·5리바운드에 그쳤다. 이전 2경기과 같은 활동량이 나오지 않았다. 1쿼터 초반부터 득점에 불이 붙은 모트리를 상대로 두 차례 골밑 득점을 올리며 맞불을 놓는 듯 했지만, 얼마가지 못한 채 모트리에게 주도권을 내줬



다. 모트리는 이날 48점을 폭발시켰다. KBL PO 역사상 한 경기 최다득점 기록이다. 라건아가 모트리와 매치-업에서 밀린 KCC는 무기력한 경기 끝에 PO 역대 최다점수차(45점) 패배를 당했다.

27일 인천에서 펼쳐질 4차전에서 라건아와 모트리의 매치-업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3차전 패배는 자존심 강한 라건아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요소가 됐다. 라건아는 KBL에서 가장 꾸준한 선수다. 59경기 연속 더블-더블(역대 1위)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2경기 연속 부진이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부진한 경기를 한 차례 치른 직후에는 더 왕성한 활동량을 뽐내며 상대를 제압해왔다. 부상 중인 파워포워드 송교창(25·200cm)의 출전이 불투명한 KCC로서는 라건아의 활약이 절실하다.

모트리도 물이 오를 대로 올라있다. 미국프로농구(NBA) 하위리그인 G리그 정상급 선수로 경력을 이어온 그는 3차전 활약을 통해 자신의 위력을 입증했다. 모트리는 "라건아는 좋은 선수다. 1, 2차전에서 밀렸지만 3차전에서는 나다운 수 보여주겠다고 생각했다. 4차전에서도 3차전과 똑같이 플레이 하겠다"며 라건아와의 매치-업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전주 KCC 라건아(왼쪽)의 꾸준함이나, 인천 전자랜드 조나단 모트리의 달아오른 기세나. 27일 열린 전자랜드와 KCC의 4강 플레이오프 4차전은 외국인선수 매치-업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스포츠동아DB



라파엘 나달이 26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ATP 투어 바르셀로나 오픈 단식 결승에서 스테파노스 치치파스를 꺾고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 2018년 이후 3년만의 이 대회 제패다. 바르셀로나(스페인) | AP뉴시스

'3시간 38분 혈투' 끝 치치파스 제압 나달, 바르셀로나 오픈 12번째 우승

다음달 프랑스 오픈 14번째 정상 도전 청신호

세계랭킹 3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3시간 38분의 혈투 끝에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바르셀로나 오픈 정상에 섰다.

나달은 26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스테파노스 치치파스(그리스·5위)를 2-1(6-4, 6-7(6-8), 7-5)로 이겼다. 나달은 2018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이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그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연패를 달성한 뒤 2011년부터 2013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두 차례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나달과 치치파스의 결승전은 그야말로 혈투였다. 3시간 38분 승부는 ATP 투어가 경기 시간 측정을 시작한 1991년 이후 3세트 경기로는 최장 시간 결승전 기록이었다.

나달은 1세트를 선취해 조기에 승부를 끝낼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치치파스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다. 치치파스는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접전 끝에 2세트를 잡아 1-1 팽팽함을 유지했다. 나달은 3세트에서 치치파스에게 매치 포인트를 내주기도 했다. 게임 스코어 4-5로 뒤져 한 포인트만 더 내주면 준우승에 머무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치치파스의 백핸드가 네트에 걸려 범실이 기록되면서 기사회생했다. 위기를 넘긴 나달은 이후 연달아 3게임에 따라 최중 세트 스코어 2-1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나달이 한 대회에서 12번 이상 우승한 것은 프랑스 오픈(13회) 이후 바르셀로나 오픈이 두 번째다. 나달은 다음 달 마드리드 오픈과 이탈리아 오픈에 출전한 뒤 프랑스 오픈에 출격해 14번째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개인 21번째 메이저대회 우승 도전이기도 하다. 나달이 21번째 우승에 성공하면 로저 페더러(스위스·8위)를 제치고 메이저대회 최다 우승자가 된다.

도쿄올림픽 선수단, 이번주부터 백신 접종

도쿄올림픽 선수단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6일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4월 말부터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출전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질병관리청은 1월부터 국가대표 선수단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협의해왔고, 이달 초 대한체육회와 1차 접종 명단을 확정해 백신접종 계획을 수립했다. 선수 및 지도자들은 백신 접종 주기와 임박한 대회(예선·본선) 일정에서의 경기력 유지를 고려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선수단 지원 인력은 현행 백신 접종지침에 따라 3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림픽 선수단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참가를 돕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당국의 접종 계획이 반드시 무난한 프로세스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각종목별 상황이 다른 것처럼 현장에서 제한 요소가 적지 않다. 최근 대회 조별리그 상대국들이 확인된 남자 축구의 경우, 해외 파가 최대 걸림돌이다. 대한축구협회는 30명 예비엔트리를 전달했는데 여기에 해외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감독과 협회는 27일 관련 토의를 할 계획이나 현재 리그가 진행 중인 해외 파의 4월 접종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접종 시기나 방법이 제각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도쿄올림픽 기간, 리그 중단을 일찌감치 결정할 프로야구는 예비 엔트리 전원이 KBO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어 해외 파 접종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자칫 발생할 지도 모를 부작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신 접종을 할 선수 대부분이 각 팀 주축이라 누구든 부작용을 호소하게 되면 전력에 큰 차이를 빚을 수 있어 백신 접종 후 공식전 없이 2~3일 정도 컨디션 경과를 지켜보는 방안 등까지 심사숙고하고 있다.

30세 이상 AZ백신...30세 미만은 화이자
축구 해외파들 4월접종 무리 등 혼란도

대한배구협회는 '백신 접종'을 강행하려는 분위기다. 다음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될 VNL 대회를 앞두고 친선선수촌에서 소집 훈련을 하고 있는 여자배구대표팀은 당국의 접종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백신을 맞으려 한다. VNL 대회 출전자가 사실상 그대로 도쿄올림픽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자농구도 최근 미국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최강 센터' 박지수의 접종이 화두로 떠올랐다.

아마추어 종목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올림픽 쿼터 대회 등 예선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시점에서 도쿄로 향할 선수단 구성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마냥 미뤄둘 수도 없어 담당자들은 속이 타들 어간다.

sports2i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프로야구 기록실 (26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	연속	타율	평균자책	홈런	득점	실점	승률	도루	실책
1	L G	19	11	8	0	0.579	-	1승	0.237	3.89	0.444	79	80	17	14	20
2	S S G	19	11	8	0	0.579	-	1패	0.241	4.90	0.600	89	104	23	16	20
3	삼 성	20	11	9	0	0.550	0.5	2승	0.275	3.78	0.667	103	87	18	21	13
4	N C	19	10	9	0	0.526	1.0	1승	0.256	4.50	0.400	110	97	28	18	18
4	두 산	19	10	9	0	0.526	1.0	1패	0.282	3.96	0.600	98	79	15	7	12
4	K T	19	10	9	0	0.526	1.0	1승	0.285	4.23	0.600	103	87	10	20	16
7	K I A	19	9	10	0	0.474	2.0	2패	0.253	4.66	0.333	81	97	4	14	6
7	롯데	19	9	10	0	0.474	2.0	1패	0.284	5.22	0.444	108	109	17	5	14
9	한 화	19	8	11	0	0.421	3.0	1패	0.247	4.70	0.556	94	96	11	9	14
10	키 움	20	7	13	0	0.350	4.5	1승	0.237	5.14	0.364	89	118	8	17	18

●**경기결과**

LAA 4-2 휴스턴	볼티모어 8-1 오글랜드
St. 루이스 5-2 신시내티	샌디에이고 8-7 LAD (연승11회)
밀워키 6-0 시카고C	토론토 1-0 탬파베이
애리조나 5-0 (DH) 애들랜타	애리조나 7-0 (DH) 애들랜타
샌프란시스코 4-3 마이애미	캔자스시티 4-0 디트로이트
뉴욕M 4-0 워싱턴	클리블랜드 7-3 뉴욕Y
콜로라도 12-2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6-2 미네소타
보스턴 5-3 시애틀	시카고W 8-4 텍사스

●**경기결과**

골든스테이트 117-113 새크라멘토	브루클린 128-119 피닉스
멤피스 120-113 포틀랜드	워싱턴 119-110 클리블랜드
애들랜타 111-104 밀워키	살트 125-104 보스턴
인디애나 131-112 올랜도	살트 125-104 보스턴

●**아마추어 경기결과** (26일)

●**농구** ●2021 KUSF 대학농구 U-리그 1차대회(서수원필드)
●남자 1부 C조=고려대 91-53 상명대

●**하키** ●제 40회 협회장기 전국 남녀 하키대회(청풍명월 하키경기장) ●남자 대학부 8강=조선대 2-1 제주국체대 ●남자 고등부 8강=아산고 6-2 계산고, 성일고 4-1 이매고, 달성고 4-2 제천고

●**태권도** ●2021년 전국 종합 태권도 선수권대회(안동체육관)
●핀급 남자 고등부 3학년 개인전=① 정용재(서산고), ② 김근후(부산체고), ③ 김민우(울산스포츠과학), ④ 차인석(백석고) ●플라이급 남자 고등부 3학년 개인전=① 이상우(한성고), ② 김중흥(경상공고), ③ 이재원(인천체고), ④ 송원우(인평자동차) ●밴텀급 남자 고등부 3학년 개인전=① 안현진(성안고), ② 이준범(침단고), ③ 정호진(삼일고), ④ 송시협(소사고) ●라이트 헤비급 남자 고등부 3학년 개인전=① 고세홍(신목고), ② 이한결(동광산업과학), ③ 김원(관악고), ④ 최광원(협성고) ●헤비급 남자 고등부 3학년 개인전=① 마태산(풍성고), ② 신인성(아름고), ③ 최수중(영북고), ④ 김규민(경상공고) ●핀급 여자 고등부 3학년 개인전=① 김하은(침단고), ② 김수민(포항해곡고), ③ 김선아(서울아이티), ④ 임유민(연체고) ●플라이급 여자 고등부 3학년 개인전=① 오채윤(부산체고), ② 주재희(천안상고), ③ 이지인(홍익디자인), ④ 김여진(서울아이티) ●밴텀급 여자 고등부 3학년 개인전=① 김지수(전남체고), ② 장윤선(제천상고), ③ 서가현(수원정보과학), ④ 김문영(부산체고) ●페더급 여자 고등부 3학년 개인전=① 김유민(서울체고), ② 우진정(청동고), ③ 전은경(동광산업과학), ④ 진수진(제주중앙여고)

●**경기예고**

●**프로야구** (27일)

롯데 (노경민)	잠실	LG (정찬원)	KT (택스파이네)	인천	SSG (정수민)
오후6시30분, KBSN스포츠		오후6시30분, SPOTV			
NC (김영규)	대구	삼성 (부캐년)	한화 (김민우)	광주	KIA (임기영)
오후6시30분, MBC스포츠플러스		오후6시30분, SBS스포츠, 광주 CMB			
두산 (유희관)	고척	키움 (요기서)			
오후6시30분, SPOTV2					

●**메이저리그** (26일)

●**아메리칸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무	승률	중부지구	승	패	무	승률	서부지구	승	패
1	보스턴	14	9	1	0.609	캔자스시티	13	7	1	0.654	오글랜드	14	8
2	탬파베이	11	11	2	0.500	시카고W	12	9	2	0.538	시애틀	13	9
3	토론토	10	11	3	0.476	클리블랜드	9	11	3	0.455	LAA	10	10
4	뉴욕Y	9	12	4	0.435	미네소타	7	13	4	0.346	휴스턴	10	11
4	볼티모어	9	12	5	0.435	디트로이트	7	15	5	0.310	텍사스	9	13

●**내셔널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무	승률	중부지구	승	패	무	승률	서부지구	승	패
1	뉴욕M	9	8	1	0.529	밀워키	13	8	1	0.610	LAD	15	7
2	필라델피아	10	11	2	0.476	St. 루이스	11	10	2	0.524	샌프란시스코	14	8
3	애들랜타	9	12	3	0.435	피츠버그	11	11	3	0.455	샌디에이고	13	11
3	마이애미	9	12	4	0.435	시카고C	10	11	4	0.455	애리조나	11	11
5	워싱턴	8	11	5	0.420	신시내티	9	12	5	0.430	콜로라도	8	13

●**NBA** (26일)

●**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서부 콘퍼런스							
순위	대서양지구	승	패	무	승률	중부지구	승	패	무	승률	남부지구	승	패
1	브루클린	41	20	1	0.677	밀워키	37	23	1	0.615	애들랜타	34	27
2	필라델피아	39	21	2	0.649	인디애나	29	31	2	0.483	마이애미	32	29
3	뉴욕	34	27	3	0.559	시카고	25	35	3	0.417	살트	30	30
4	뉴욕	32	29	4	0.524	클리블랜드	21	39	4	0.350	워싱턴	27	33
5	토론토	25	35	5	0.417	디트로이트	18	43	5	0.299	올랜도	18	42

서부 콘퍼런스													
순위	북서지구	승	패	무	승률	대서양지구	승	패	무	승률	남서지구	승	패
1	유타	44	16	1	0.733	피닉스	42	18	1	0.700	멜버른	33	26
2	덴버	39	21	2	0.649	LAC	43	19	2	0.690	멤피스	31	28
3	포틀랜드	32	28	3	0.530	LAL	35	25	3	0.583	샌안토니오	30	29
4	오글랜드	20	40	4	0.333	골든스테이트	31	30	4	0.517	뉴올리언스	26	34
5	미네소타	17	44	5	0.279	새크라멘토	24	36	5	0.400	휴스턴	15	46

●**프로농구** (27일)

●**2020-2021 현대모비스 KBL (4강PO 4차전)**

전자랜드	vs	KCC
오후7시, SPOTV G&H, SPOTV ON		

●**농구도도 매치 35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27일)

경기	경기일시	홈	vs	원정	경기장소
1	04.27(화) 19:00	전자랜드	vs	KCC	인천상산월드체육관